

필리핀의 ‘피플 파워’와 중산층: ‘변화 없는’ 사회의 역동성

김민정*

- I. 들어가는 말
- II. 에스트라다의 등장과 퇴진, 그리고 EDSA II
- III. 필리핀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 IV. 에드사II와 III의 계급성
- V. 맺는 말: 피플 파워의 역할

이 글은 두 번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통해 다시 한번 중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주목 받은 필리핀 중산층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변화가 없어 보이는 국가, 필리핀 사회 변화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2001년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피플파워 2는 흔히 1986년 피플파워1를 이어 중산층이 주도한 무혈 혁명으로 불린다. 그러나 두 사건의 진행과 주도 세력을 비교해 보면, 15년 간의 필리핀 사회변화가 목도되는데, 교회보다는 시민사회가, 보다 젊은 세대의 참여가, 그리고 새로운 통신기술의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피플 파워2에 이어 같은 해 5월에 발생한 친에스트라 빈민시위는 필리핀 중산층의 구성과 역할, 계급격차의 표면화라는 문제에 주목하도록 한다.

필리핀의 중산층을 정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찾기 힘들다. 시장조사의 분류에 의한 중산층은 10% 내외의 소수이며 마닐라에 집중되어 있고 내부구성은 상당히 이질적이며 변화하고 있다. 피플파워로 인해 필리핀의 중산층은 특히 경제적 계급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신분이며, 정치적 행위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의 가치와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이고

*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모호한데, 반독재와 반부패를 주창한 시민운동 세력이기도 하지만, 기존 독재와 부패 정권 속에서 계층 상승을 한 내부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이 주도하였다는 피플 파워 역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와 힘의 과시이기도 하지만, 법과 절차를 뛰어 넘은 집단적 정치행동으로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피플 파워와 같은 대중 시위 방식이 반복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 사회가 변화하기 않았다는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플파워 2의 세력은 그 동안 새로 성장하고 다변화한 중산층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표방하는 반부패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내용을 표방한다. 또한 뒤이어 발생한 친에스트라다 시위의 빈민세력은 중산층에 비해 사회변화의 대열에 뒤쳐진 자신들 삶의 여건에 대해 분노를 표하기 위해 중산층의 시위 방식을 모방하였다. 이러한 중산층의 성장과 다변화, 계급격차와 갈등의 심화, 대중 시위 방식의 모방 등은 필리핀 사회의 변화와 역동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필리핀, 중산층, 피플파워, 에스트라다, 대중시위, 계급격차, 정치문화, 사회변화, 시민사회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지난 2001년 1월 제2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통해 다시 한번 중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주목받은 필리핀 중산층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변화가 없어’ 보이는 국가, 필리핀 사회 변화의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1997년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비교할 때 필리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 필리핀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이미 극심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인해 1997년 경제위기 발생 당시는 외채나

단기 외자에 대한 의존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Villacorta & Batalla 2000; Rivera 2001).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이주노동자들의 외화 송금 덕분에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충격이 상쇄된 측면도 있다.

한편 경제위기 발생 직후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된 에스트라다(Estrada)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일 년을 넘기면서 급격히 하락하였고, 급기야는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대중시위가 발생하였다. 경제위기 회복의 어려움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주었지만, 에스트라다 탄핵과 관련된 필리핀의 정치 위기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아시아 경제위기의 직접적 결과라기보다는 리더십의 실패로 평가된다. 경제위기에 뒤이은 필리핀의 정치위기는 제2의 피플 파워로 극복되었고,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혐의로 탄핵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막으려는 상원의 판결은 100만에 가까운 대규모 대중 시위를 야기하였고 결국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하였다. 2001년 1월 16일부터 4일간 에드사(EDSA: Epifanio de los Santos) 거리에서 진행된 시위는 과거 1986년 마르코스(Marcos) 대통령을 물러나도록 한 “피플 파워”의 정신을 이은 것이라고 하여, “피플 파워 2” 또는 “에드사Ⅱ”라고 불린다. 국내외 언론에서 이 피플 파워의 세력은 흔히 “중산층”이라고 표현된다.¹⁾

아시아에서 반독재 시민운동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된 필리핀의 “피플 파워”를 “중산층의 혁명”이라고 묘사할 때, 이는 참가자들의 경제적 계급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혁명적 상황의 전반적 성격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 피플 파워 1은 무혈 혁명이고, 마닐라에 국한되었으며, 기본 사회제도와 지배 체제를 파괴하지 않았다. 피플 파

1) Adriano(*Manila Times* 2003/01/21, Ng(*Business World* 2002/08/23-24), Sheehan(*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1/02/01), Mitchell(*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1/02/08) 등.

위 2 역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피플 파워 1과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비슷한 특징을 보여준 대규모 대중 시위였기 때문에 중산층 혁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즉, 필리핀에서 중산층은 정치적 지향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경제적 계급으로 서보다는 정치적 세력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범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필리핀 연구자들은 필리핀 사회가 사회 신분상의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경제적 계급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하며,²⁾ 특히 중산층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학계에서 중산층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계급, 즉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계급을 의미하며, 고용관계에서의 신뢰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노동계급과 구분된다(Lockwood 1995, 1). 그러나 새로 출현한 계급으로서 중산층을 묶어내는 기준은 경제적 자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출처와 규모의 자산,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문직종, 일정한 소비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수입 규모,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중산층으로서의 소비행태와 정치성향 등을 설명하는데 동원되기 때문이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필리핀의 중산층은 자산가 층인 부르주아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Robison & Goodman 1996).

한편 피플 파워 2 이후에는 에스트라다를 지지했던 하층 빈민 계급이 참가하여 “빈자들의 피플 파워”라고도 불리는 “에드사 III”가 발생하였다. 과거 피플 파워 1에서 반독재라는 운동의 명분을 놓고 좌파와 중도파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나타났다면, 피플 파워 2에서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통해 필리핀 사회의 계급 ‘간’ 대립구

2) 필리핀의 사회적 불평등은 지주와 소작인, 자본가와 노동자와 같은 계급적 개념보다는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big people과 little people(Lynch 1959)), 가진 자와 못 가진 자(haves와 have-nots(Kerkvliet 1990)), 엘리트와 대중(bugis와 masa (Pinches 1991)) 등과 같은 사회적 신분의 함의가 담긴 개념을 통해 분석되고 있다.

조가 표면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피플 파워 2의 세력을 중산층으로 묶어 부를 수 있는지, 그때의 중산층은 어떤 의미인지 답을 찾아보는 것은 피플 파워 1과 2 사이에 발생한 필리핀 사회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경제위기 이후의 필리핀 상황에 대해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당선과 몰락 과정 그리고 피플 파워 2의 진행과정을 통해 정리해보고, 피플 파워 2를 피플 파워 1과 비교하면서 정치적 세력으로 중산층의 역할과 위치가 언급되는 맥락을 살펴본다. 이어 필리핀 사회에서 중산층이 대두하는 역사적 과정과 중산층의 특징을 정리하고, 필리핀 중산층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사회조사에서 사용되는 중산층 개념을 통해 이들이 정치적 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연이은 피플 파워가 보여주듯 역동성이 넘치는 필리핀 사회가 왜 항상 “변화없는”(changeless) 땅으로 묘사되는지, 필리핀 사회변화의 의미를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II. 에스트라다의 등장과 퇴진, 그리고 EDSA II

1. 에스트라다의 등장

1998년 5월 에스트라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에랍”(Erap para sa Mahirap)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하층과 빈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총 득표율은 40%였는데, 특히 하층(E 계층)에서 47.7%를 또 유권자의 63%에 달하는 중하층(D 계층)에서도 40% 가량을 득표하였다. 보다 놀라운 것은 가톨릭 교회와 교육받은 집단이 그의 여성

편력과 학력에 대해 노골적인 경멸과 비판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층과 상층(ABC 계층)에서 로코(Roco)에 비해 3.1%만 뒤쳐지는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http://www.sws.org.ph/editpsde.htm>; Rivera 2001, 247-248에서 재인용).³⁾

에스트라다의 이력은 과거 어느 대통령과도 사뭇 다르다. 부유한 엘리트 가문 출신도 아니고 대학 중퇴의 학력이지만 대중 영화판에 뛰어들어 인기를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1968년 30세의 나이에 산 후안(San Juan)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18년 동안 시장으로 복무하고 이어 상원의원과 부통령직을 거친 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8년 선거에서 하층과 빈민들은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화속 주인공 에스트라다가 독립 이후 지속되어 온 엘리트 민주주의에 중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다른 정치가들과 달리 그가 내건 친빈민 구호는 그가 출연했던 영화 이미지를 통해, 또한 선거 유세에서 필리핀어(Filipino)로 연설하거나 농민들과 함께 손으로 밥을 먹는 서민적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현실성을 갖추었다. 다른 한편, 정치엘리트 가문 출신이 아닌 중산층 진보 지식인들도 에스트라다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특히 필리핀 국립대학 출신의 좌파, 활동가, 진보적 지식인들은 초기 내각에 적극 참여하였다.⁴⁾ 이들은 에스트라다의 친빈민 구호가 진보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즉 에스트라다의 당선은 영화배우로서의 대중적 인기

3) 여기서 사용된 ABCDE의 계층구분은 오늘날 필리핀의 마케팅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al Economic Status) 분류를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III장 2절을 참조할 것.

4) 예를 들어, 농지개혁부(DAR: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장관으로 임명된 좌파 인물 호라시오 모랄레스 주니어(Horacio Molares, Jr.), 주택도시개발위원회(HUDC: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ordinating Council) 위원장으로 임명된 까리나 콘스탄티노-다비드(Karina Constantino-David), 경제계획부 장관(Economic Planning Secretary)인 펠리페 메다야(Felipe Medalla), 예산관리부 장관(Budget Secretary)인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등을 들 수 있다.

의존한 것만큼이나, 아키노(Aguino) 이후 시도된 개혁 성과의 미흡함, 특히 전통적 정치 엘리트들이 복귀한 정치 현실에 대한 거부감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에스트라다는 취임하자마자 과거 자신이 신세를 진 친구 기업가와 정치인들을 요직에 앉히고 주로 이들과 사적인 분위기에서 정사를 논하였다. 또한 각료들에게 선심성 선물을 하고, 내연의 부인들에게 호화별장을 선물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1999년이 되면서 에스트라다는 내각에 속해 있던 내부자로부터도 “전문성”과 “규율”이 부족하고 정책 결정과정이 무질서하고 개인적이며 파편화되어 있다는 평을 듣게 되고(Rivera 2001, 249),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곧 내각에서 주변적 위치로 내몰렸다.⁵⁾

에스트라다의 정치적 위기는 그의 경제정책 수행능력이 전문 경영자 집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필리핀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나 피해가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해 적은 편이었으며, 그의 취임 당시 필리핀은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던 중이었다.⁶⁾ 그러나 에스트라다 집권 후인 1999년 GDP성장률은 1986년 이후 최하인 -3.3%를 기록하였다(Paderanga 2001, 182). 한편 1997년 이후 필리핀의 산업구조는 농업과 공업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는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에스트라다의 임기 중인 1998년과 1999

5) 입각 후 등을 돌린 에스트라다 내각 참여자들의 증언과 기록으로는 Constantino-David (2001), Laquian & Laquian(2002) 등을 참조할 것.

6) 아세안 대표국의 실질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986-2000(Paderaga *et al.* 2001, 182).

연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1986-1990	4.7	6.3	6.9	10.4	8.2
1991-1995	2.2	7.8	8.7	8.6	8.6
1996-2000	3.5	1.7	4.9	0.5	6.3
1986-2000	3.5	5.2	6.8	6.5	7.7

년 사이 농업 부문의 성장률은 4.7%로 공업 부문 수치인 2.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부문에서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부정적으로 해석된다(Paderanga 2001, 184). 2000년도 필리핀의 폐소화와 주가의 변화는 에스트라다의 정치위기가 아시아 경제위기와는 다소 별도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금융계와 재계에서의 적신호가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필리핀의 폐소화와 주가는 물론 1998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의 정치위기로 인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 2000년 1월 1달러당 40페소이던 환율과 2100 수준이던 필리핀 주가지수(Phisix)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에스트라다의 실각을 초래한 결정적 사건인 싱손(Singson)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있던 10월 9일에는 달러 당 49페소와 주가지수 1,264로 급락한다(Suh and Lopez 2000).

에스트라다 집권 시기 필리핀의 경제 상황이 아시아 경제위기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의 경제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거의 가져오지 못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가 대대적으로 내세운 빈민 프로그램이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과 민다나오 분리주의자들에게 군사적 대응을 한 것도 대내외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스트라다의 부정부패 정치 스캔들이 터지면서 폐소화와 주가가 급락한 것은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BC: Makati Business Club)으로⁷⁾ 대변되는 재계 인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탄핵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 배경이 된다.

7)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BC)은 필리핀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조사하고 논평하는 재계 인사의 포럼으로 1981년에 결성되었으며, 2004년 현재 전 산업 분야의 450여개 대기업을 대표하는 800여 명의 CEO급 인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원은 클럽에서 초빙하는 방식으로 충원된다(<http://www.mbc.com.ph>).

2. 에드사 II와 에스트라다의 퇴진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사임은 1999년 8월 20일 마카티(Makati)의 아얌라(Ayala) 가(街)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⁸⁾ 코라손 아키노를 위시한 시위 조직자는 반 에스트라다 구호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여기에 참가했던 필리핀의 여성단체 연합체인 가브리엘라(Gabriela)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9월 21일에는 가톨릭 교회 세력을 중심으로 젊은이와 학생세력, 인권 단체들, 농민단체연합(KMP: Kilungsan Magbubukid ng Pilipinas) 등이 모여 사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2000년 1월이 되면 대표적 일간지인 인콰이어러(Philippine Daily Inquirer) 첫 면에 “에스트라다 퇴진”(Oust Erap)이라는 제호의 기사가 실린다. 4월 3일에는 상원의원인 킵고나(Teofisto Guingona)가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9월 21일에는 킵고나 의원과 함께 여러 하원의원들이 참여한 에스트라다 반대 시위가 조직된다.

이 즈음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던 싱손 주지사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불법 도박인 웨땡(jueteng)의⁹⁾ 이익금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상납하였다고 폭로하였다(10월 9일).¹⁰⁾ 싱손의 폭로는 반

8) 이상의 상황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 연합인 바얀(Bayan: Bagong Alyansang Makabayan)의 총무간사 Casiño의 글(2001)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9) 웨땡은 두 개의 공에 쓰인 1부터 37까지의 숫자를 맞추는 도박으로, 1페소를 걸면 400에서 1,000페소까지 딸 수 있다. 1800년대 말에 스페인으로부터 들어왔으며 필리핀 사회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중국 이민자들이 주로 돈을 걷고 경기를 진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The Straits Times* 2001/01/01). 많은 지역에서 마을 수준에 뿌리를 내린 친숙한 게임이며 신중한 계산과 아는 사람들 간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오랜 동안 지역의 고리대금업자, 폭력조직, 불법 정치자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불법화되었지만, 불법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웨땡과 관련된 필리핀 농촌 마을의 상황설명에 대해서는 <http://www.pcij.org/stories/1995/jueteng3.html>을 참조할 것.

10) 이하의 사건 진행과정은 참고문헌의 신문과 잡지 목록에 제시된 기사내용과 필리핀 텔레비전 ABS-CBN 프로그램인 “The Correspondents”의 특집 “Hatol ng Bayan: EDSA

에스트라다 사태를 급진전시켰다. 곧 이어 신(Sin) 추기경은 대통령의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royo) 부통령은 겸직하고 있던 사회복지발전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장관직을 사임하였다(10월 11일). 위기감을 느낀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하였지만(10월 14일), 금융권이 밀집해 있는 마카티 구역에서는 본격적인 대중 집회가 시작되었고, 하원의원 14명이 뇌물 수수와 부패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접수시켰다(10월 18일).¹¹⁾

하원에서는 탄핵이 결정되었고(11월 13일), 상원의 탄핵 심리가 시작되었는데(12월 7일), 검사측이 에스트라다에게 부여한 죄명은 뇌물수수, 부정 이득과 부패, 공공 신뢰에 대한 배신, 헌법의 침해라는 4개 항목이었다. 2001년 새해가 되면서 이퀴터블(Equitable PCI) 은행의 부총재가 대통령이 가명으로 비밀계좌에 사인한 사실을 증언하자 (2001년 1월 2일), 사태는 에스트라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졌다. 이 즈음 에드사 성당과 기타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피플 파워를 통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1월 12일). 대규모 대중 시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10 대 11로 대통령의 가명계좌 기록 공개를 거부한 상원의 결정이다(1월 16일). 은행의 가명계좌 기록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결정적 물증임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심리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저지한 것이다. 당시의 투표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의원들의 투표결과 역시 공개되었다. 생방송 중 부결 결과에 기뻐 춤추는 오래

Dos, A Special Report by ABS-CBN”(2001년 1월, 60분)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 11) 필리핀의 대통령 탄핵 과정은 하원의장이 사건을 접수한 후 10일 안에 대법원에 제출하여 과반 수 이상의 서명을 얻으면 하원의 탄핵이 결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원 재적의원 1/3 이상의 표결을 얻어야 한다.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된 후에는 상원이 대법원장의 통솔 하에 심의하게 된다.

따(Teresa Aquino-Oreta) 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이 장면은 에스트라다를 반대하는 시청자들에게 심한 분노감을 안겨주었다. 투표 결과에 실망한 상원의장 피멘텔(Aquilino Pimentel)은 의장직을 사임하였고, 에드사 거리의 시위 참가자는 급증하여 1월 19일에는 백만 명을 돌파하였다. 사태의 흐름은 급진전하여 국군참모총장 레이예스(Reyes)마저 에스트라다에 대한 군의 지지를 철회하자, 반 에스트라다 시위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하였다(1월 19일). 밤새도록 귀가하지 않은 군중들은 다음 날 아침 대통령 궁을 향하는 멘디올라(Mendiola) 다리 위에 집결하였고, 혼란과 위기감이 극에 달한 다음날 정오에 대법원장은 에스트라다의 내각이 사임하더라도 아로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발표가 난 지 2시간 후인 오후 2시에 에스트라다는 자진사퇴하였다(1월 20일). 이로써 1월 16일 화요일부터 1월 20일 토요일까지 4일에 걸쳐 전개되었던 에드사Ⅱ 대단원의 막은 일단락되었다. 에스트라다가 사퇴한지 일주일 후 아로요 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1월 28일), 대법원은 에스트라다 측의 제소에 대해 아로요의 대통령 취임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3월 2일), 에스트라다의 대통령 사임과 관련된 법적 과정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4월 25일 옴부즈맨 특별검사에 의해 국고 횡령 혐의로 에스트라다가 체포되자 이번에는 에스트라다를 지지하는 하층과 빈민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플 파워”(Poor People Power), 또는 에드사 Ⅲ로 불리었다.¹²⁾ 이들의 구호는 “에랍은 우리와 함께”(Erap is with us), “대통령 궁을 접수하자”(Take Malacañang) 등이었고, 이 시위를 이끈 사람은 아버지를 이어 산 후안 시장으로 당선된 에스트라다의 장남 징고이(Jingoy)이다. 4월 29일 일

12) 에드사Ⅲ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신문과 잡지의 기사내용과 필리핀 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란돌프 다비드(Randolf David)의 관찰기를 참조하였다 (David 2001).

요일 밤, 시위규모는 절정에 달하여 거의 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여기에는 에스트라다를 지지하는 종교단체인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Iglesia ni Cristo)나 엘 샤다이(El Shaddai)의 조직이 동원되었고¹³⁾ 에스트라다의 정당인 민중의 힘(PnM: Puwersa ng Masa)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참가하였다. 당시 지도부의 의견은 대통령 궁으로 가자는 측과 에드사에 남자는 측으로 갈린 상태였다. 다음날 정부는 이글레시아와 엘 샤다이의 지도부에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였고, 두 조직이 빠지면서 군중의 수와 분위기는 모두 격감하였다. 하지만 밤을 샌 군중들은 몇 달 전의 에드사Ⅱ처럼 마카티 지역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근처 주택가의 부유층을 긴장시켰다. 아로요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나와 이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선포하였으며 군부의 분열을 노리는 정치인들을 비난하였다.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의 발언을 거만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4만 여명의 군중들은 대통령 궁으로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돌과 파이프, 폭발물 등을 이용하여 군경과 싸우면서 거의 대통령 궁의 정문까지 다다랐으며, 이런 식의 전투가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시위자 네 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사태는 진정되었다.

에드사Ⅲ의 발생은 에드사Ⅱ에 대한 평가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사실 에드사Ⅱ에 대한 필리핀 국내와 국외 언론 보도의 논

13)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나 엘 샤다이는 1998년 선거 시에 에스트라다를 지지했던 종교 조직이다. 이글레시아는 펠릭스 마날로(Felix Manalo)가 1914년에 창설한 필리핀 토착 개신교 종파이며 1970년대 이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자체적으로는 메트로 마닐라에 2백만 명의 신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엘 샤다이는 마이크 벨라르데(Mike Velarde)가 이끄는 카리스마파에 속하는 가톨릭 평신도 조직이다 (자체적으로는 메트로 마닐라에 6백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노래와 춤, 환호성과 집단 기도, 치료 의례 등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군중집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이 특징적이며 1990년대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에스트라다는 엘 샤다이의 지도자인 “브라더(Brother) 마이크”를 자신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에 대해서는 개신교 교파 소개 사이트인 <http://www.letusreason.org/Iglesia1.htm>를, 엘 샤다이에 대해서는 관련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com/elshaddai_dwxi_ppfi를 참조할 것.

조는 상당히 달랐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필리핀 국내 언론은 에드사Ⅱ에 대해 올바른 정부(good government)와 하나의 국민이 되기(nationhood)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¹⁴⁾ 반면 서구 언론의 보도 태도는 곱지 않은 편이었는데, 타임(Time)지(紙)는 피플 파워 2를 “나쁜 민족적 습관”(bad national habit)이라고, 또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紙)는 “부자들의 파워”(rich people’s power)라고 비꼬면서, 필리핀 사회에서 발생한 대중 시위의 의미와 세력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Spaeth 2001; Sheehan 2001; Reid 2001, 778에서 재인용).

에드사Ⅱ 발생 일년 후가 되면, 에드사Ⅱ를 주도하였던 정치인들, 아로요 대통령과 아키노, 라모스(Ramos) 전 대통령 등은 피플 파워 방식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비판하기 시작하며, 신 추기경은 에드사 성당에서의 정치 집회를 아예 금하였다.¹⁵⁾ 즉 필리핀에서 피플 파워 2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 정신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에드사Ⅰ과의 비교를 통해 지난 15년간 중산층 무혈 민주 혁명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피플 파워 세력의 성격 변화는 필리핀의 사회변화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14) 에드사Ⅱ가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기사는 거의 보기 힘들다. 그러나 일주년이 되면 에드사Ⅰ과 비교하면서 그 의의를 살려야 한다는 기사내용이 등장하고, 이주년이 되면 아로요 정부가 에드사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기사들이 등장한다. 주로 참조한 필리핀의 국내 주요 일간지는 *Philippine Daily Inquirer*, *Business World*, *The Philippine Star*, *Today* 등이다. 자세한 기사 목록은 참고문헌 참조.

15) AFP(2002), Doronilla(2002b, 2002c) 등 참조.

3. 에드사 I 과 II의 비교

필리핀 국내 언론에서 에드사II는 발생 당시부터 에드사 I 과 비교 되었으며, 그 연속성이 강조되어왔다. 에드사 I 은 1986년 2월 아시아에 서는 최초로 대규모 대중 시위를 통해 장기 독재 대통령 마르코스 (Marcos)를 사임하도록 만든 “피플 파워”의 원조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 르면서 두 사건간의 차이가 언급되고 강조되면서, 비교의 초점은 세계적 으로 보기 드문 두 번의 피플 파워가 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필리핀의 상황을 진단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 국립대학 정치학과 교수 논문(Hernandez 2001)과 필리핀 경제지 비즈니스 월드(*Business World*) 기사(Ng 2002)에서 두 건의 피 플 파워를 비교하는 내용을 통해 그 차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표 1〉 에드사 I 과 에드사II의 공통점과 차이점 예시

	Hernandez (2001)	Ng (2002)
공 통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위기시 발생, 민주주의 회복 - 교회, 특히 신 추기경의 영향 중요 - 시민의 자발적 참여 - 재빠른 조직, 평화로운 시위 - 군부의 지지철회 중요 (그러나 II에서는 군부역할 덜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한 통치에 대한 갈망이 목적 - 신성한 힘이 개입한 흔적 존재 - 무혈봉기 - 군부가 전환점 제공 (그러나 I에서는 시민이 군부지지, II에서는 시위의 판세가 드러난 후 군부가 이를 지지)
차 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에서는 좌파 이탈, II에서는 보다 다양한 좌파 및 정치적 스펙트럼 포함됨 - II에서는 참여 연령 내려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에서는 더 많은 개별적 참여 - I에서는 좌파 분열, II에서는 좌파가 중요한 역할 담당 - I에서는 신부와 수녀의 참여 높았으나, II에서는 신 추기경만이 핵심적 교회 인물 - II에서는 학생과 젊은 세대 참여 - II에서는 더 준비된 차기 여성 지도자 등장 - I에서는 로우 테크, II에서는 하이 테크 사용

두 저자 모두 두 번의 피플 파워에 대해 교회, 군부, 비정부조직, 학생층을 주요 참여 세력으로 지적한다. 에드사 I 과 II 참여자의 다양한 구성은 피플 파워를 “중산층 혁명”으로 부르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에드사 I 과 II에서 각 사회 세력의 참여 범위와 성격은 차이를 보인다. 에드사 I 당시는 인권탄압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던 권위주의 독재 시기였고, 신부와 수녀들이 시위대열의 앞에서 군대와 맞섰다면, 에드사 II에서는 신부 수녀들의 이러한 선도적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에드사 II에서 신 추기경은 아키노 전 대통령과 아로요 부 대통령과 함께 시위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적 사회 인사의 위치를 지켰다. 신 추기경의 정치적 역할은 보다 표면화되었지만, 시위가 진행되면서, 예를 들면 2000년 10월과 달리 11월에는, 평신도들이 시민으로서 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변화가 뚜렷해졌다. 특히 2001년 1월의 결정적인 4일 동안은 시민조직이 교회조직을 압도하였다고 평가된다(Carroll 2001, 245-249).

에드사 II에서 군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였지만, 에드사 I 처럼 무혈 혁명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참모총장은 대중의 향방을 보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으며 대통령에게 퇴진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군대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적 통치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ivera 2001, 252). 그러나 이제 군대는 피플 파워에 협조한 공로로 비군사적 지위에 임명된 퇴역 장성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Hernandez 2001, 73-74).

비정부조직의 행방 중 좌파의 참여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에드사 I 에서 좌파는 둘로 갈렸으며, 온건파만이 선거에 참여하고 아키노 정부를 구성하여 마르코스 독재를 종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키노 정부 시기에는 좌파 내의 분열과 내부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졌고 심지어는 좌파 내에서 암살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거의 급진 좌파 조직들은 더 이상 혁명봉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비정부조직으로 새로이 정체성을 갖추고 활동을 해왔다. 이에 에드사Ⅱ에서 좌파 조직은 초기 국면에서 선도적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신 추기경이나 아키노 전 대통령, 아로요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대통령 궁으로의 시위를 주도하여 에스트라다의 사임을 얻어냈다(Casiño 2001).¹⁶⁾

에드사Ⅱ는 다양한 시민운동과 비정부조직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지만, 참가자의 다수는 특정 운동단체의 소속 없이 친구 집단이나 직장 동료끼리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에드사Ⅰ 시절과 달리 핸드폰과 인터넷의 사용은 특히 학생층과 중산층 참가의 폭을 더 넓히고 독려하였다.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는 특정한 행동 지침을 재빠르게 다단계로 전파시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익명의 사람들 간의 동시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소식망, 패러디, 조크 역시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핸드폰을 소유하고 인터넷에 익숙한 도시 중산층 학생층들의 참여가 많았다(Pertierra *et al.* 2002).

한편 에드사Ⅱ에서는 텔레비전으로 대변되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 에드사Ⅰ이 가톨릭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베리타스(Radio Veritas)에 주로 의존하던 것과 달리 에드사Ⅱ에서는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된 상원의 표결과정, 부결에 기뻐하며 춤추는 상원의원을

16) 참가하였던 주요 시민단체 중 하나인 바얀(Bayan)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 궁으로의 행진은 이미 1월 17일에 참가 조직 협의회에서 결정되었는데, 다음날이 되자 신 추기경과 아키노 전 대통령은 별 다른 이유 없이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월 19일 군의 지지철폐가 선포되자 참가 조직 관계자들은 멘디올라 다리로의 행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신 추기경과 아키노 전 대통령, 아로요 부 대통령은 대통령 궁으로의 행진을 반대하였고, 이에 2000년 10월 에스트라다의 퇴진 요구와 함께 아로요를 지지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시위의 핵심 세력이던 콤포넬Ⅱ(KompilⅡ: Kongreso ng Mamamayang PilipinoⅡ)는 내분의 분위기에 놓였다. 결국엔 전체적인 입장의 통일 없이 개인의 선택으로 멘디올라로의 행진이 진행되었다(Casiño 2001, 261-262).

포착한 방송 내용의 반복, 이후 진행된 에드사 시위에 대한 특별 방송 등, 텔레비전의 생생한 이미지와 사건 전달의 동시성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매체의 여론 주도 는 다른 한편으로 에드사Ⅱ에 반감을 가지는 하층과 빈민층을 자극하여 에드사Ⅲ를 촉발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약하면 에드사Ⅱ는 에드사Ⅰ에 비해 덜 종교적이었고, 군부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급진적 비정부조직이 진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중산층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핸드폰,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가 여론 형성과 정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즉 에드사Ⅱ는 15년 사이의 필리핀 사회 변화를 대변하며, 중산층과 시민사회의 성장은 그 변화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플 파워를 통하여 부각된 필리핀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에드사Ⅲ 세력이나 외신이 비난하듯 이들을 필리핀의 ‘부자’라고 하기에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 보인다. 필리핀 사회에서 중산층은 ‘부자들’, 그리고 ‘빈자들’과 어떻게 구분되며 어떤 관계인가? 아래에서는 정의하기 힘든 필리핀 중산층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Ⅲ. 필리핀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1. 필리핀 중산층의 형성과 특징

‘중산층’의 개념을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고전적 양대 계급, 즉 지주출신의 구 자본가나 노동자와는 다른 자원을 가지고 대두한 새로운

사회세력이라고 폭넓게 정의할 경우, 필리핀의 중산층 형성과정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필리핀의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일찍 출현하였으며, 경제적 부보다는 고용이나 교육이 중산층을 특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필리핀에서는 스페인 식민지배 시기에 이미 지주계급 출신으로 스페인 유학을 다녀 온 집단이 존재하였으며, 이후 미국 지배시기에 시행된 대중교육은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사회 전반에 널리 퍼뜨렸다. 즉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중산층과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중산층이 독립 이후에 대두하고 급성장 한 것과 달리, 필리핀에서는 독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중산층이 독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다(Crouch 1985, 30-31).

독립 직후 필리핀 사회의 정치적 힘은 메스티조(mestizo) 지주 가문에 배타적으로 속해있었으며, 이들을 통해 농산물 가공과 소규모 제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950년대에 국가가 지원하는 수입대체산업의 기업가가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르주아라 부를만한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된다. 토지소유와 밀접히 관련된 전통적인 구 엘리트와 달리, 이들은 미국 교육 체계의 산물이며 국가 관료제와 전문직종, 사기업의 발전, 산업 자체의 확장으로 생겨난 직종의 종사자들이다. 1960년대까지 지속되는 보호주의 분위기와 민족주의 지식인의 출현은 중산층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Pinches 1996, 107-109).

필리핀에서는 1950~60년대에 이미 중산층의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정치적 개입을 하게 된다. 맑스와 모택동을 추종하는 공산당(1968년) 초기 회원 13명 중 10명은 중산층 출신이고, 의장이던 시손(Sison)은 지주 집안에 속하는 대학 교수였으며, 당의 핵심세력 역시 중산층 배경의 학생과 지식인이었다(Rivera 2001, 234). 한편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가톨릭 쪽의 진보 집단 역시 중산층 전문가와 대학생들을 기반 세력으로 하고 있었다. 마지막

으로 개혁적 자유주의 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종이나 기업계 인사들의 집단이 존재하는데, 1951년에 미국의 후원 속에서 결성된 남프렐(NAMFREL: National Movement for Free Elections)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Rivera 2001, 235).

마르코스 정권은 구 엘리트 지주가문을 제압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와 대안적 권력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측근세력(cronies)을 구축하였는데, 이들은 과거와 구분되는 새로 등장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코스의 측근에는 코후앙코(Eduardo Cojuangco)나 베네딕토(Roberto Benedicto)와 같이 부유한 지주 가문 출신도 있지만, 다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출신이며 농산물 관련 산업, 건축, 선박, 은행, 부동산 등에 종사하면서 새로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본주의 기업가(capitalist entrepreneur)가 아니라 이권 추구자(rent-seeker)라고 평가되기도 한다(Yoshihara 1988). 그러나 1970년대 새로운 국제 노동분업 질서의 확산으로 필리핀에서 제조업이 성장하고 외자의 투자바람이 불고, 새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 아래 국내 하청기업이 생겨난 것은 새로운 수출지향 산업 부르주아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마르코스 측근세력에 속하지 않는 중류계급이 많았다(Pinches 1996, 110-113).

마르코스 정권 시기에는 이처럼 새로운 부유층이 중산층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반정부 세력의 핵심층 역시 중산층으로부터 구성되었다. 마르코스 이전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위에서 언급한 세 부류의 정치적 저항세력은 마르코스 시기에 그 활동이 본격화된다. 여기에 속하는 공산당 지도자, 인권변호사, 활동가 성향의 성직자, 작가, 기자, 학자, 학생 등은 중산층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6년의 피플 파워에는 고급 옷을 입은 전문직과 사무직, 관리직 사람들이나 의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 자체가 마닐라의 상업 지구에서 행해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중산층 혁명으로 묘사되었다(Pinches 1996, 115). 실제로

전문 경영인 중 일부는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BC: Makati Business Club)을 조직하여 공개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였고, 다른 이들은 익명으로 시위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남부 민다나오의 모로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이나 군부 내에서 생겨난 군부개혁운동(RAM: Reform the Armed Forces Movement) 역시 중산층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도 피플 파워 세력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들의 중산층 배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반 마르크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의 유연성에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들, 예를 들면 좌파와 군부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묶이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Rivera 2001, 237-39). 즉, 당시의 피플 파워가 중산층 혁명이라는 표현은 빈부를 떠나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반 마르크스를 표방하는 중산층 배경의 사람들(신부, 수녀, 학생, 사업가, 운동가, 군부, 정치인 등)이 거리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중산층 배경이 아니면서 반 마르크스에 동의하는 구시대의 보수적 정치인이 포함된 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Rivera 2001, 239).

마르크스 몰락 이후 중산층은 더욱 확대되고 보다 이질적으로 구성되며, 구 지주 가문은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아키노(Aquino) 정부 초기에는 7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우익 자경단이 창궐하였으며 좌익 내의 분열과 대립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위기국면 하에서 아키노 정부는 주요 사회변혁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결국 마르크스 이전의 “엘리트 민주주의”로 복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정영국 1994). 한편 라모스 대통령은 과거 마르크스 측근 자본주의에 반대하던 도시 기업가 집단과 구 지주 가문에 반발하는 군부 장교 집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였다. 라모스 정부는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정책적 기조를 고수하였고 기술과 투자가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 등에서 사적 독점을 막고자 하였다. 의류와 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GNP 대비 비중도 크게 늘었지만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시장은 부동산이었다(Pinches 1996, 118).

1990년대 중반 필리핀의 중산층은 수적으로 급증하였으며 부르주아가 아닌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는 관료층을 벗어나 성장하는 등 내부적으로 보다 다양해졌다. 또한 1991년 통과된 지방정부법(LGC: Local Government Code)은 비정부조직과 중소 정당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교육받은 중산층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새로운 채널이 되고 있다. 한편 대학 교육의 배경을 가지고 이주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집단이나 최근 통일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가톨릭의 카리스마 파(charismatic) 종교 운동 집단도 중산층을 구성하는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Rivera 2001, 241-243).

필리핀 사회에서 새로운 부와 학력,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회집단의 출현과정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가 따른다. 우선 전체 인구 중 중산층의 비중은 여전히 적어 보인다. 직종 분류로 중산층의 수와 증가 추세를 추정해본다면, 1956년 전문직과 기술직, 행정직의 비율은 6.5%였으며 이 수치는 1987년까지 유지되다가 이후 조금 증가하여 1990년에는 7.4%가 된다(NSO 1989, 686; NSO 1995, 853). 한편 시장조사에서 사용하는 사회경제적 신분의 다섯 계층 분류법(ABCDE)에 의하면 1990년대 말 중산층(C계층)의 인구는 10~12%로 추정된다(Rivera 2001, 232). 중산층이라 할 만한 인구수가 적다는 사실은 필리핀의 계급 논의가 중산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적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정치세력으로 주목받는 현상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아래에서는 필리핀 사회의 계급 논의 속에서 중산층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정리하고, 필리핀 중산층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과 중산층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필리핀의 계급 연구와 중산층에 대한 접근

필리핀 중산층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필리핀 사회에서 중산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존재를 인정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수치와 성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터너(Mark Turner)는 중산층과 관련된 필리핀의 계급 연구를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한다(Turner 1995, 88-93).

첫째는 필리핀 계급관계의 특징을 고전적인 두 계급(classical two classes)이 호혜적 이자(dyadic) 관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Lynch 1959, 1975). 필리핀에서는 계급 ‘간’을 연결하는 후원주의 수직선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계급 ‘내’ 연대라는 수평선은 취약하며, 결과적으로 두 계급 사이에 중간층이 대두할 가능성은 사라지거나 약화된다(Wurfel 1988, 61; Timberman 1991, 23). 필리핀 사회 내부의 인식도 이러한 입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1993년도 전국조사에 의하면 필리핀이 두 계급으로 구성된 사회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1%이며, 특히 이러한 의견은 상층(27%)과 45세 이상의 연령층(26%)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Turner 1995, 89).

두 번째는 맑스와 베버의 전통을 수정하여 계급 모델의 변형을 시도하는 다양한 입장이다. 여기에 속하는 학자들은 경제적 관계로서 계급을 상정하면서도 계급 개념 자체가 다양성과 모호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생산뿐 아니라 교환과 소비 영역을 중산층 판별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한다. 실제 분석에서는 연구 사례의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계급 모델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북부 일로코스(Ilocos) 농촌 사회 분석에서 빠르띠에라(Pertierra 1988)는 계급을 생산체제와 관련된 범주로만 사용한다. 반면 시알시타(Zialcita 1991)는 신분상의 위계 속에서만 중간층을 상정하고 계급의 의미에서 중간적 위

치를 뜻하는 용어 사용은 피하고자 한다. 핀치(Pinches 1996)는 경제적 계급의 의미에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상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적 지위와 수입, 소비 패턴의 다양성을 통해 독립 이후 중산층은 증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한편 루텐(Rutten 1992)은 소규모 제조나 상업, 또는 이주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세 번째는 계층화(stratification) 개념으로 필리핀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세 개 이상의 층화된 분류체계를 사용하게 되므로 중산층은 본격적인 분석 범주 중 하나가 된다. 다수의 사회학자들은 이 모델을 사용하며, 마닐라에서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한다(Cespedes & Gibbs 1972; Hunt *et al.* 1987; Bautista 1999; Rivera 2001). 여기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모델은 직업을 주요 기준으로 상, 상중, 중, 중하, 하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이미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내포되는 문제, 내부의 다양한 층을 고려할 때 중산층 경계선의 위치를 결정하기 힘든 문제, 다른 분류 기준에 따라 하위(sub-) 계층들이 서로 중복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Turner 1995, 90).

현재 필리핀에서 세 번째 의미의 중산층은 시장 조사나 설문조사를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영향력 있는 조사기관인 사회기상국(SWS: Social Weather Stations)이나 펄스아시아(Pulse Asia) 등이 사용하는 사회경제적 신분(SES: socio-economic status) 모델로, 필리핀 가구를 A-B-C-D-E 라는 5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이다(Arroyo 1990). 5 계층의 구분 기준에는 필리핀 사회에서 특히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신분의 판별 조건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는 가구 별로 간접수입, 소비, 지위 지표를 고려한 분류이며, 선험적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 평가가 반영된 경험적 분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옥의 견고성, 가옥의 보수 유지, 정

원의 상태, 이웃의 유형, 가구주의 교육정도와 직업, 가내시설 등이 기준으로 채택된다.¹⁷⁾ 1989년에는 전체 가구수의 7%가 C에 속하는 중산층으로 분류되었는데(Turner 1995, 91), 1990년대 말이 되면 그 수는 10%를 넘는다(Rivera 2001, 232). 그러나 메트로 마닐라만의 수치를 보면 1993~1995년 즈음 30~40%가 C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Bautista 1999, 9), 중산층의 전국적 분포가 마닐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필리핀 전체의 중산층 비중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마닐라를 중심으로 발생한 두 번의 피플 파워가 중산층 주도인 것으로 해석되는 배경이 된다.

한편 바우티스타(Bautista)와 리베라(Rivera)는 중산층을 전문직과 행정직, 경영직에 종사하는 “신중산층”과 전통적인 소자본가(10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주인 “구중산층”,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며 자율성이 정도가 낮은 사무직인 “주변부 중산층”으로 구분한다(Bautista 1999; Rivera 2001, 232). 직종을 기준으로 나눈 이 세 그룹을 사회경제적 신분(SES) 모델과 교차 비교해보면, 신 중산층은 ABC에만 분포하지만, 주변부 중산층은 ABCDE 전 계층에서 나타난다.¹⁸⁾ 이는 필리핀 중산층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 힘들다는 점을, 즉 중산층은 다양한 경제적, 교육적, 또는 문화적 자원에 기반한 다양한 직업과 경제적 지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내부 구성의 이질성은 대통령에 대한 찬반과 같이 명백한 정치적 의사표명에서 중산층이 중심이 되어 상층과 하층이 폭넓게 연대할 수 있

17) SWS의 분류법 소개는 Arroyo(1990)를, 구체적인 샘플 분석을 통해 직업 범주로서의 중산층과 교차검토를 한 연구로는 Bautista(1999)를 참조할 것. 분류기준에 가족의 견고성이나 정원 형태, 이웃의 유형, 가내시설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필리핀 사회에서 부를 나타내는 독특한 방식이 반영된 것이다. 필리핀 사회에서 부유함은 좋은 집을 짓고 꾸미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마닐라의 경우) 이웃 유형에 대한 항목은 경제적 계층에 따라 살고 있는 주택단지가 구분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18) 중산층 직종 분류별 계층분포(%): 1997년 마닐라의 ‘중간층’ 966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Bautista 1999, 8).

는 배경이 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필리핀의 중산층은 마닐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교육받은 집단으로, 공무원 영역의 전문직을 통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민주적 선거제도와 자유로운 매스 미디어의 사용, 형식적으로 보장되는 법적 권리 등을 통해 내부의 주요 분파는 정치적 기술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나갔다(Rivera 2001, 232-233). “약한 국가”라는 필리핀 정치문화의 특징 역시 정치 운동과 조직에서 중산층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배경이 된다. 앞 절에서 제시하였듯이 필리핀 정치사에서 이들이 주도한 정치 운동과 조직은 맑시즘과 공산주의에서부터 보수주의, 급진적 기독교,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제설혼합적 입장, 민다나오의 이슬람 근본주의와 급진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최근 20년간 꾸준히 증가한 이주노동을 통해 새로운 부를 축적한 집단 역시 중산층의 하위 집단을 구성한다(Rivera 2001, 234).

중산층이 필리핀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과 저항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는 이들이 과거 토지 소유 가문과 이들의 정치적 힘에 대해 보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마르크스 몰락 이후 수적으로 증가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시민운동 또는 비정부조직은 중산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기도 하다.¹⁹⁾ 그렇다면 중산층은 빈민층을 포함한

SES 분류	신 중산층 직종	구 중산층 직종	주변부 중산층 직종	합계
AB	20.1	4.4	3.3	11.2
C1	59.5	35.3	29.6	44.9
C2	20.4	56.7	48.7	38.8
D		3.2	13.8	4.0
E		0.4	4.6	1.1
% (표본수)	100(328)	100(252)	100(152)	100(732)

필리핀 사회 전반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아니면 이들의 정치적 지향은 하층과는 상충되는 것인가? 아래에서는 에드사Ⅱ와 Ⅲ의 계급성을 비교해 보고, 중산층 주도로 대변되는 정치 의식과 정치 참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IV. 에드사Ⅱ와 Ⅲ의 계급성

필리핀 사회의 설명에 중산층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피플 파워 이후이다.²⁰⁾ 그러나 1986년의 피플 파워를 중산층 혁명으로 설명할 때, 그 의미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피플 파워는 소풍 같은 시위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 상징으로 가득 찬, 마닐라의 중산층이 주도한 정치 혁명으로 묘사되기도 하고(Cruz 1989; Turner 1995, 94의 인용),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부자)와 대중이라는 양대 계급의 대립구조 속에서 후자가 주도권을 갖지 못한 미완의 사회혁명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드 라 토레 1987, 183-186).²¹⁾

15년이 지난 에드사Ⅱ 전후에 여론조사기관 펄스아시아(Pulse Asia)가 시행한 설문조사는 에스트라다를 둘러싼 지지자와 반대자의 계급적 차이가 뚜렷할 뿐 아니라, 나이, 교육,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

19) 중산층의 정치적 지향성이나 가치체계의 특징에 대해서는 Rivera(2001)를 참조할 것. 중산층과 비정부 조직 간의 관계,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증대되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Clarke(1993)을 참조할 것.

20) 피플 파워 이전에 중산층의 개념으로 필리핀 사회를 설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스페데스(Cespedes and Gibbs 1972)의 연구처럼 제목에 중산층이 포함된 연구라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사회 전반의 계급변화 속에서 중산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체계가 근대로 변화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21) 이에 진보 지식인 그룹에서는 피플 파워를 ‘좌’파가 빠지고 ‘오른’ 팔과 ‘머리’만 있는 “원팔 없는 조산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공제욱 외 1987, 제3부).

타남을 보여준다. 뇌물 스캔들이 터지기 이전인 2000년 7월 중순 상층인 AB 계층에서 에스트라다를 신뢰하는 정도의 수치는 이미 -17%였지만, 중산층인 C 계층에서는 8%, 중하층인 D에서는 22%, 하층인 E에서는 36%였다. 스캔들이 발생한 2000년 10월 말부터 전 계층에서 에스트라다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에드사Ⅱ를 겪고 난 2001년 2월이 되면 급강하하여 각기 -74%, -55%, -28%, -10%를 기록한다. 에스트라다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하락하는 것은 같으나 계층 간의 차이는 상당하다(Bautista 2001, 17). 동 기간 내 직업별로 에스트라다를 신뢰하는 정도를 보면, 자본가와 지주층에서 신뢰 정도가 가장 낮으며 하락 폭은 크고, 소 부르조아 층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며, 노동 계급과 실업 층에서는 신뢰 정도가 가장 높고 하락 폭도 적다(Bautista 2001, 18). C, D, E 계층 내 연령별, 학력별 구분을 보면, 30세 이상인 층에서 그리고 대학교육 이하의 층에서 에스트라다에 대한 신뢰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신뢰 정도의 하락율도 낮다(Bautista 2001, 18-19). 한편 거주지역 별로 구분하여 보면 D 계층에서는 마닐라 거주자의 신뢰 정도가 가장 높았다가 최하로 하락하지만, E 계층에서는 마닐라 거주자의 신뢰 정도는 거의 하락하지 않는다(Bautista 2001, 20). 즉, 에스트라다를 신뢰하지 않고 에드사Ⅱ를 지지한 층은 중상층의 젊고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에스트라다의 지지층은 하층이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덜 교육받은 마닐라 거주자라고 할 수 있다.

에드사Ⅱ 이후 SWS에서 시행한 전국조사는 계층별 의견의 차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에드사Ⅱ에 대한 지지, 아로요 대통령의 승인, 에스트라다의 혐의에 대한 믿음 등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중하층의 경우 특히 혼돈스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2〉 참조). 2001년 2월 7일 전국조사에서는 “에스트라다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채택을 거부한 상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72%)

이지만, “에스트라다의 혐의를 믿는다”는 의견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 으며(40%), 대신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33%) 나타난다. 특히 사건 진 행의 각 국면에 대한 의견은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에드사 II 를 통해 에스트라다를 축출한 것이 정당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 답자의 61%가 그렇다, 20%가 아니다 라고 답하여 그 차이는 +41이었 다. 그러나 ABC 계층에서는 그 차이가 +52로 평균보다 훨씬 더 높으 며, D에서는 +44, E에서는 +25로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차이의 폭은 상당히 감소한다. 한편 “에스트라다가 탄핵 사유에 대해 유죄인지 아닌 지 밝히기 위하여 재판에 회부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되는 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66%가 회부해야 한다, 33%가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였다. 여기서도 재판 회부를 반대한 ABC 계층은 23%에 불 과하나, D는 29%, E는 47%로 계층 간 의견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한편 에스트라다에 대한 재판이 끝난 후인 2001년 11월 3-21일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0%가 에스트라다의 부패혐의를 믿는다고 답하였지만, ABC 계층에서는 69%, D에서는 39%, E에서는 32%가 믿는다고 답하여 양 계층의 답변율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Arroyo 2003).

〈표 2〉 에드사II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의 계층별 차이
(SWS의 2002년 조사, Arroyo 2003에서 재구성) (단위: %)

질문 계층	에드사II 발생사실을 알고 있다	2001년 1월 16일의 상원결정은 부당하다	에스트라다를 물러나게 한 에드사II는 정당(%)- 부당(%) : 답변율 차이	시암한 에스트라다 를 재판에 회부한 것은 부당하다	에스트라다의 혐의에 대해		
					믿는다	믿지 않는다	모르 겠다
ABC	99	73	52	23	69	12	19
D	88	75	44	29	39	27	34
E	68	65	25	47	32	37	31
전체	84	72	41(61%-20%)	33	40	28	33

국민 전체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계층별 의견의 차이가 가장 부각되는 항목은 “에스트라다의 혐의 내용을 믿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E 계층이 상원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BC 계층과는 정반대로 에스트라다에 대한 혐의를 믿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D와 E층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모르겠다”라는 응답에는 다른 정치인들도 부패하였을 것이라는 정치에 대한 전반적 불신 속에서 에스트라다의 유죄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발생한 에드사Ⅲ를 에스트라다의 지지자에 의해 조직되고 돈으로 동원된 빈민들의 시위라고 일축하기 힘든 부분이다. 에드사Ⅱ와 Ⅲ에서 나타난 계층 간의 대립된 견해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를 넘어선 세계관의 차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에드사Ⅱ가 대외적으로 내세운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청렴한 정치지도자에 대한 바램을 중허층 집단은 왜 공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에드사Ⅱ 주도 세력 중 하나인 일간지 인콰이어러(*Philippine Daily Inquirer*)의 편집위원이자 평론가인 도로닐라(Amando Doronila)는, 에드사Ⅲ가 고조된 2001년 4월 30일 신문 논평에서 반 에스트라다 엘리트 지식인의 불편한 입장을 드러낸다. 그는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룸펜 프로레타리안인 도시 하층 계급에서 충원된 사람들이 에드사Ⅲ의 구성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주체적 행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고용된 폭력배라고 폄하한다. 그는 에스트라다가 실제로는 엘리트 출신이고 엘리트적 삶을 살면서 빈민들을 속인다고 비난함으로써 에드사Ⅲ의 지지자들을 분별력 없이 속는 사람들로 대상화한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자였다 …… 이제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주장을 위해서 충격 완충장치나 하찮은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Doronila 2001).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에스트라다가 빈곤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 정권이나 피플 파워 정부, 경제회복을 달성한 군 출신 대통령 그 누구도 빈곤층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대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트라다가 빈곤층을 속인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여지껏 아무도 빈곤층이 ‘속을 만한’ 정치적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아테네오 대학의 학장인 아발(Henedina Razon-Abad)은 “에드사 I 이후 어떤 지도자도 빈곤층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에랍(Erap: 에스트라다에 대한 애칭)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이며, 바로 같은 이유에서 “일부 중산층은 에랍의 친구이자 영화배우인 FPJ(Fernando Poe, Jr.)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Luib 2003). 유사하게 필리핀 국립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멘도사(Amado Mendoza) 역시 에드사 I 이후 생활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부자나 권력가는 보다 (빈곤층에 대해) 냉소적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 반대로 빈곤층은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해주지 않았으므로 표를 돈으로 바꾸는 것을 받아들인다”(Luib 2003).

그렇다면 에드사 II 에 참여한 시민사회세력이 반영하는 가치와 사회정의는 결국 정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인가? 오늘날 필리핀의 중산층은 신흥 부자를 꿈꾸며 빈자들에게는 불리한 사회변화를 바라는가? 무엇보다 의아스러운 점은 필리핀의 연속되는 피플 파워는, 이러한 정치변화의 역동성은 사회가 변화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일까? 필리핀 하층이나 도시빈민의 정치 의식은 그동안 필리핀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심화되어왔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 과정 속에서 변화에 대한 중산층과 하층의 기대감은 다른 방식으로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고 있다.

흔히 에드사 II 는 에드사 I 을 계승한 무혈의 중산층 민주주의 혁명

으로, 에드사Ⅲ는 여전히 “구 정치”의 체계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빈민층의 위기감과 의식에 대한 표출로 해석된다(Bautista 2001, 33). 그러나 아부에바(Abueva 2001)의 표현처럼 에드사Ⅱ가 “선거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달성을 향해가는 과정 중의 사건이라고 할 때, 에스트라다에 대한 반대와 지지를 통한 에드사Ⅱ와 Ⅲ세력의 대립은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따른 난관과 사회 내부의 이견을 보여준다. 다수의 국민이 가난한 상태에서 건강한 민주주의의 달성은 불가능해 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산층의 요구는 빈곤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필리핀의 중산층은 아시아 지역 내 또는 서구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수입과 투자의 수준은 낮지만 소비 수준은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근면함을 통해 계층상으로 상승 이동하고 있는 집단이다(Bautista 1999).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필리핀의 중산층은 다양한 직종과 자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수입으로 구분하기 힘들지만, 특정한 가치지향성을 통해 하나의 집단으로 포착된다. 일례로 중산층은 근면 성실, 교육에의 투자, 재산소유권, 안정적 가족생활, 존경심, 추진력, 자신감, 적당한 안락함 등 근대화 과정이 지향하는 가치를 중시하고 내면화한 집단이다(Turner 1996, 96). 다른 한편, 중산층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견해가 필리핀 사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서 민족주의를 표방하지만, 생활양식과 사회관계의 가치 등 문화적 측면에서 명백하게 서구 지향적이라는 역설을 보여준다(Turner 1996, 96). 즉, 중산층은 계층 상승을 기대하면서 스스로가 빈민을 위해 바람직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호한 계층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이상과 기대는 더욱 많은 사회 복지와 공공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민층의 요구를 대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배치된다고도 할 수 있다.

에드사Ⅲ에서 에스트라다를 지지한 도시빈민의 결집은 아키노 시절 이멜다를 옹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혜자 집단 균등과 달리 계급적 불

만을 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에드사Ⅲ의 군중이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받았거나 일당을 받았다는 사실은 군중의 계층성을 재확인 시켜 주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에스트라다를 지지하면서 엘리트 중산층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에드사Ⅱ에 대한 에드사Ⅲ의 반대가 전통적 후원관계를 지지하는 복고적 반응인지, 아니면 경제적 하층의 정치적 의사 표명이라는 새로운 계급적 현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데, 에드사Ⅲ를 피플 파워 1과 2를 모방한 빈곤층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계급으로 구분되는 사람들 간의 대립을 낳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르고 정당한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에드사Ⅱ가 내세운 민주와 정의의 실현에 대한 요구는 중산층의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에드사Ⅲ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필리핀의 하층이 민주와 정의의 가치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민주와 정의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 후원관계가 해체되고 산업구조는 바뀌었지만 사회복지나 경제적 재분배 체계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하층이 바라는 것은 민주와 정의를 수호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빈곤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관심을 표명하는 민감한 제스처어인 듯 하다.

피플 파워라는 대중 시위 방식으로 법을 초월하는 정치변화를 요구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사실이 필리핀 사회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주장은 모순된다. 에드사Ⅱ의 세력에는 그동안 새로 성장하고 다변화한 중산층의 존재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이 표방하는 반부패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필리핀 사회의 변화는 감지된다. 에드사Ⅲ 역시 과거와 달리 사회 변화의 대열에 뒤쳐진 자신들 삶의 여건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하층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사회 변화의 일면을 대변한다.

V. 맺는 말: 피플 파워의 역설

중산층을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통해 등장하는 새로운 중간 계급 집단이라고 할 때, 1957년 세계은행이 필리핀을 극동 지역에서 일본 다음의 위치에 있다고 보고한 것(Australian 1993/11/29, 12; Pinches 1996, 105에서 재인용), 그리고 30년이 지난 1980년대 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제발전이 실패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필리핀의 새로운 중산층은 독립 이후 아시아 내에서 두각을 보인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증가하였으며, 고질적인 경제 불안정을 초래한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 운동에서 중심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필리핀은 역동적인 정치과정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땅으로, 소위 피플 파워를 기반으로 성립된 정부가 “고질적인 엘리트 정치”의 복귀로 평가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필리핀 정치변화의 아이러니는 필리핀 중산층의 애매한 성격과 정치적 역할의 모순과 관련된다. 필리핀 중산층은 경제적 계급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신분으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내부구성이 다양하고, 마닐라에 집중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는 다소 과잉으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들은 반독재와 반부패를 주창하는 시민운동 세력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독재와 부패 정권 속에서 계층 상승을 이룬 내부 세력이기도 하다. 한편 중산층이 주도한 것으로 묘사되는 피플 파워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와 힘을 과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법과 절차를 뛰어 넘은 집단적 정치행동이기에 법과 제도의 힘을 더욱 약화시켰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필리핀 중산층 내부 구성의 모호함과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 간의 모순은 약한 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한계 속에서 정치 변동을 추진하는 사회세력의 보완적 힘을 보여준다. 리이드(Reid 2001)가 분석하듯이, 서구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가치, 즉 시장 효

올성과 조응하는 민주적 통치 질서를 제도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제3세계적 상황에서 필리핀의 피플 파워는, 에드사Ⅲ까지 포함하여, 사회 경제적 변형을 추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발전 명제에 기반을 둔 서구의 시각에서 본다면, 피플 파워와 같은 사회적 '역동성'은 끊임없이 트라보(trapo: 전통적 정치가)의 지배로 끊임없이 복귀하는 '변화 없는' 사회가 지속되는 메카니즘으로 읽힐 뿐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성장과 민주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동시적 추구가 불가능한 필리핀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내부자의 시각과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필리핀 중산층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사회 구성 세력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조응하고, 대립하고, 또 분화하는 내부적 과정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한편 에드사Ⅱ에서 관심을 끈 현상 중 하나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과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 매체의 소유와 사용, 이를 통한 행동지침의 전파력이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즉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의 개발과 사용, 전파는 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식과 정치적 의사표명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의 정치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개진하며(Rivera 2002, 253), 2004년 선거부터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기술의 진전, 세계화의 진행, 초국가적 집단의 성장 등과 같은 변화의 방향 역시 중산층의 구성과 정치적 역할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이에 향후 필리핀의 중산층 연구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과 방식의 의미와 효과, 국가경계를 넘나드는 시민 의식과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과 한계에도 관심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 공제욱 외. 1987. 『필리핀 2월 혁명: 마르코스 독재정권의 붕괴와 민족민주운동』. 민중사.
- 드 라 토레. 1987. “코리정부와 민족민주운동의 과제.” 공제욱 외. 『필리핀 2월 혁명: 마르코스 독재정권의 붕괴와 민족민주운동』. 민중사.
- 정영국. 1994. “필리핀 민주화의 전개와 한계: ‘엘리트 민주주의’의 복원.” 김성주 외. 『동남아의 정치변동』. 오름.
- Abueva, Jose V. 2001. “A Crisis of Political Leadership: From ‘Electoral Democracy’ to ‘Substantive Democracy’.”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Makati: Inquirer Books.
- Arroyo, Dennis M. 1990. “The Usefulness of the ABCDE Market Research System.” *Social Weather Bulletin*. November 12.
- Bautista, Maria Cynthia Rose Banzon. 1999. “Images of the Middle Classes in Metro Manila.” *Public Policy* 3(4).
- _____. 2001. “People Power 2: ‘The Revenge of the Elite on the Masses?’”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Makati: Inquirer Books.
- Butler, Tim and Mike Savage, eds. *Social Change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UCL Press.
- Carroll, John J., S. J. 2001. “Civil Society, the Churches, and the Ouster of Erap.”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Makati: Inquirer Books.
- Casiño, Teodoro A. 2001. “View from the Streets: Different Folks, Different Strokes.”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Makati: Inquirer Books.
- Cespedes, C. and Gibbs, E. 1972. “The New Middle Class in the Philippines: A Case Study of Culture Change.” *Asian Survey* 12.
- Clarke, Gerard. 1993. “People Pow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hilippine Politics Since 1986.” *Philippine Quarterly of Culture & Society* 21.
- Constantino-David, Karina. 2001. “Surviving Erap.”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Makati: Inquirer Books.

- Constantino, Renato, 1975. *A History of the Philippine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Crouch, Harold, 1985. *Economic Change, Social Structure and the Political System in Southeast Asia: Philippine Development Compared with the Other ASEAN Countri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Cruz, I. R, 1989. "People Power Kuno." W. V. Villacorta *et al.*, eds. *Manila: History, People and Culture*. Manila: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 David, Randolph, 2001. "A Diary of Disenchantment."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Makati: Inquirer Books.
- Hernandez, Carolina G. 2001. "Reflections on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eople Power 2."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Makati: Inquirer Books.
- Hunt, C.L. *et al.* 1987. *Sociology in the Philippines Setting: A Modular Approach*. Q.C.: Phoenix.
- Kerkvliet, Benedict, 1991. *Everyday Politics in the Philippines: Class and Status Relations in a Central Luzon Vill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quian, Aprodicio A., and Elianor R. Laquian, 2002. *The Erap Tragedy: Tales from the Snake Pit*. Manila: Anvil.
- Lim, Joseph Y. 2000. "The East Asian Crisis and Gender Employment: The Philippine Case." AUN & KASEAS.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and Korea: It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mpacts* (Conference on the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and Korea, Bangkok, Feb. 2000). Seoul: Jontong gua Hyundai.
- Lockwood, David, 1995. "Making out the Middle Class(es)." T. Butler and M. Savage, eds. *Social Change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UCL Press.
- Lynch, F. 1959. *Social Class in a Bikol Tow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_____. 1975. "Big People and Little People: Social Class in the Rural Philippines." M.R. Hollnsteiner, ed. *Society, Culture and the Filipino Vol II*. Q. C.: Institute of Philippine Culture.
- Masataka Kimura, 1995. "Rise and Fall of Bandila: A Study of a Middle Force Alliance and the Urban Middle Class in Philippine Politics." *Pilipinas* 24.
- NSO (National Statistics Office). 1995. *Philippine Yearbook*. Manila.
- Paderanga, Cayetano W. Jr., C. Atienza, F. Co, and F. B. Villarante, 2001. "The

- Erap Economy.”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Makati: Inquirer Books.
- Pertierra, R. 1988. *Religion, Politics and Rationality in a Philippine Community*. Q.C.: Ateneo de Manila Press.
- Pertierra, R. et al. 2002. *Txt-ing Selves: Cellphones and Philippine Modernity*. Manila: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Inc.
- Pinches, M. 1991. “The Working-class Experience of Shame, Inequality and People Power in Tatalon, Manila.” B. J. Kerkvliet and R.B. Mojares, eds. *From Marcos to Aquino: Local Perspectives in Political Transition in the Philippines*. Q.C.: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Pinches, M. 1996. “The Philippines’ New Rich: Capitalist Transformation Amidst Economic Gloom.” R. Robinson and D. Goodman, eds. *The New Rich in Asia: Mobile Phones, McDonalds and Middle Class Revolution*. London: Routledge.
- Reid, Ben. 2001. “The Philippine Democratic Uprising and the Contradictions of Neoliberalism: EDSA II.” *Third World Quarterly* 22(5).
- Rivera, Temario C. 2001. “The Middle Classes and Democratisation in the Philippines: From the Asian Crisis to the Outster of Estrada.” A.R. Embong, ed. *Southeast Asian Middle Classes: Perspects for Social Change and Democratisation*. Bandgi, Selangor: Penerbit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 Robison, Richard, and S.G. Goodman David, 1996. “The New Rich in Asia: Economic Development, Social Status and Political Consciousness.” R. Robison and D.S.G. Goodman, eds. *The New Rich in Asia: Mobile Phones, McDonald's and Middle-Class Revolution*. London: Routledge.
- Rutten, R. 1992. “Provincial Entrepreneurs in Philippine Crafts.” *Philippine Studies* 40(4).
- Rynveld, Sally. 1996. “Collaboration or Conflict?: Views of the Changing Role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NGO-Government Relations in the Philippines.” *Pilipinas* 27.
- Timberman, D.G. 1991. *A Changeless Land: Continuity and Change in Philippine Politic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urner, Mark M. 1995. “Imaging the Middle Class in the Philippines.” *Pilipinas* 25.
- Villacorta, Wilfrido V., and Eric Batalla. 2000. “The Political Dimensions of the Philippine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A. R. Embong and J. Rudolph, eds. *Southeast Asia into the Twenty First Century Crisis and*

- Beyond. Bangi, Selangor: Penerbit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 Wurfel, D. 1988. *Filipino Politics: Development and Decay*. Q.C.: Ateneo de Manila Press.
- Yoshihara Kunio. 1988. *The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Q.C.: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Zanini, Gianni. 1999. *Philippines: From Crisis to Opportunity: Country Assistance Review*. Washington, D.C.: World Bank.
- Ziarcita, F.N. 1991. "Perspectives on Legitimacy in Ilocos Norte." B.J. Kerkvliet and R. Mojares, eds. *From Marcos to Aquino: Local Perspectives on Political Transition in the Philippines*. Q.C.: Ateneo de Manila University.

신문, 잡지, TV

- ABS-CBN. 2001. "Hatol ng Bayan: EDSA Dos, A Special Report by ABS-CBN." "The Correspondents"의 특집 프로그램. 2001년 1월 (60분).
- Adriano, Fermin D. 2003. "Re-visiting EDSA 2." *Manila Times*. Jan 21.
- AFP. 2002. "Too much People Power Bad, Say Ex-Presidents." *Philippine Daily Inquirer*. Feb 25.
- Araneta, Sandy. 2001. "People Power II, a Period of 'liberation.'" *The Philippine Star*. Jan 22.
- Arroyo, Dennis M. 2003. "Edsa II : How acceptable was Gloria?" *Philippine Daily Inquirer*. Jan 19.
- Bundang, Augusto R. 2003. "Why we forgot EDSA." *Business World*. Feb 28-Mar 1.
- Cal, Ruben B. 2002. "EDSA 2: AFP had to act swiftly to avoid a civil war." *Manila Times*. Jan 20.
- Casino, Teddy. 2001. "Who's afraid of People Power?" *Business World*. Aug 10-11.
- Doronila, Amando. 2001. "Country Sitting on Edge of Civil War." *Philippine Daily Inquirer*. Apr 30.
- _____. 2002a. "Can a synthetic People Power replication work?" *Philippine Daily Inquirer*. Jan 16.
- _____. 2002b. "Beyond Edsa and People Power." *Philippine Daily Inquirer*. Feb. 22.
- _____. 2002c. "GMA: Edsa II beneficiary not its reincarnation." *Philippine*

- Daily Inquirer*, Jul 15.
- Esguerra, Christian and Agnes Donato. 2003. "Don't lose hope, Edsa II forces told." *Philippine Daily Inquirer*. Jan 20.
- Estabillo, Matthew and Sonny Mirasol. 2001. "People Power on television." *Philippine Stars*, Jan 20.
- Gonzales, Stella. 2000. "Experts alarmed Edsa II gains 'being squandered' ." *Philippine Daily Inquirer*. Jul 4.
- Guevarra, Argee. 2002. "Spirit of EDSA Dos." *Business World*, Jul 17.
- Landler, Mark. 2001. "Bloodless Edsa 2 did not come change." *Today*, Feb 10.
- Luib, Romul T. 2003. "Where to after EDSA I." *Philippine Daily Inquirer*, Feb 21-22.
- Marfil, Martin. 2002. "3 ranking officers disagreed on Edsa." *Philippine Daily Inquirer*, Mar 20.
- Maramba, Asuncion David. 2003. "'Pa-Edsa-Edsa-pa' ." *Philippine Daily Inquirer*. Mar 1.
- Ng, Jennifer A. 2002. "People Power." *Business World*, Aug 23-24.
- Romero, Paolo. 2003. "Reyes: No regret over EDSA II." *Philippine Stars*, Jan 19.
- Sheehan, D. 2001. "More Power to the Powerfu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 1.
- Spaeth, A. 2001. "Oops, We did it Agian." *Time* 157(4).
- Suh, Sangwon, and Antonio Lopez. 2000. "Unbowed under Fire." *Asiaweek* 26(42).
- Sun, Vivian A. 2000. "Keeping the spirit of EDSA alive." *Business World*, Feb 25-26.
- Villaviray, Johnna. 2003. "Why EDSA 2 promises are unkept." *Manila Times*, Jan 24.
- PDI(*Philippine Daily Inquirer*). 2002. "Too much people power bad, say ex-Presidents." Feb, 25.
- PDI(*Philippine Daily Inquirer*) 20 May 2002. "When 'people power' is not a coup." May 20.

'People Power' and Middle Classes in the Philippines:
Searching for Dynamics of 'Changeless' Society

KIM Minjung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characters and roles of the middle classes in the Philippines, which have been reported as leading parts of Philippine People Power, and seeks to understand the changing dimensions of the Philippine society, which has been defined as changeless land for a long time.

The People Power 2 that forced President Estrada to step down in 2001 has been commonly described as the bloodless revolution led by the middle classes, following the model set up by the People Power 1 of 1986. However, there have been unnoticed changes during the past 15 years. In 2001, for example, civil society played a major role that the church did in 1986, young generations participated more actively,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y took a critical part.

The ironic part of the second People Power is that it has been interpreted as a confirming sign of the Philippine societies changeless -ness because it repeated the first incidence without any significant results. Nonetheless, the People power 2 reflects the existence of the middle classes that have been growing and diversified, and the main slogans of the movement also have more

concrete and substantial contents than in 1986. In the meantime, pro-Estrada demonstrators, mainly from the poor classes, modeled the middle classes of People Power 2, expressing their rage against the social conditions that they regarded as leaving them behin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refore, I argue that the growth and diversity of the middle classes have deepened the gap between the classes and thus, furthered the class conflict, which ultimately can be understood as having reproduced People Power in the Philippines. It may indeed signal the dynamics of social change in the Philippines.

Key Words : The Philippines, Middle Classes, People Power, Estrada, Mass Movement, Class Differentiation, Political Culture, Social Change, Civil Society.